

 보건복지부	보 도 참 고 자 료			
배 포 일	2020. 1. 31. / (총 5매)			
중양사고수습본부 총괄1팀	팀 장 담 당 자	손 영 래 조 영 대	전 화	044-202-3803 044-202-3805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양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

- 다중이용시설 대상 중국 방문자에 대한 지침 시달 등 -
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양사고수습본부(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)는 설 연휴 등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각종 시설 종사자를 통한 감염 우려를 걱정하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 병원 간병인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중 최근 중국 방문자에 대한 지침을 각 단체, 기관, 지자체 등을 통해 통보하였다고 밝혔다.
- 최근 후베이성(우한 지역)을 방문한 종사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업무 배제를 하고, 그 외 중국을 방문한 종사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동일한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과 함께,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는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.
- 이러한 지침은 노인, 아동, 장애인, 영유아 등의 기관·지자체·협회 등을 통해 배포되었으며, 중양사고수습본부는 이행상황을 관리·감독(모니터링)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이러한 지침을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.

□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 용품의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며, 오늘부터 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생산·유통단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다.

* 「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관계부처 회의」 1월 30일 개최
(기재부 주관, 행안부, 복지부, 식약처, 공정위, 국세청 등 참여)

○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2월부터 외국인 다수를 고용하거나 왕래가 잦아 감염병 등에 취약할 수 있는 건설·제조·서비스 사업장에 마스크 72만 개를 지원할 예정이다.

□ 어제 확진자와 관련된 개인정보 문건*이 온라인 상에서 유출·확산되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, 추후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.

* 확진자 및 접촉자 1명의 이름 일부, 나이, 거주지 등의 정보 포함

○ 한편, 오늘부터 입국하는 우한 교민 이송·격리와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들과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- < 붙임 > 1. 우한 교민 관련 보도 협조 요청
2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오해와 진실

붙임 1 우한 교민 관련 보도 협조 요청

우한 교민 국내 이송 및 격리와 관련하여,
교민 개개인에 대한 보도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교민, 가족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
개개인에 대한 사진, 영상 촬영 및 개별 접촉을 통한 보도 등은
최대한 신중하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다음은 2012년 5월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함께 만든
「감염병 보도준칙」의 주요 내용으로
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보도 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1. 감염병 보도의 정확성

- 현 시점까지 사실로 밝혀진 정보를 제공하고, 신뢰할 근거 필요
-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전달하지 않고 과도한 보도 경쟁 자제

2. 감염병 보도의 일반 사항

- 해당 병 취약집단을 명확히 알리고, 과학적 입증 예방법·행동수칙을 우선·반복적 제공
-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·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과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
- 전문·의학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혼돈 완화

3.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 관련 보도

- 발생원인·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경우는 의학적 규명사실을 명확히 구분해 보도
- 다양한 전문가 의견 제시하되, 정확한 조사결과 전까지 추측·과장 보도 자제

4. 감염병 연구 결과의 보도

- 새로운 연구결과가 특정 제약사 이익이나 정부 입장을 일방적 지지하는지 확인
- 연구결과가 중간결과인지 최종결과인지 확인하여 보도

5.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

- 감염 가능성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보도하고, 혼란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
- 감염 가능성, 증가율, 사망예상자 비율을 제시할 경우, 실제 수치도 함께 전달
- 감염 규모 숫자 전달 시, 단위가 사건인지, 사례인지, 감염자 수인지 명확히 전달

6. 감염자에 대한 보도

- 신상에 대한 보도는 차별·낙인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신중
- 환자·가족 인권과 사생활 침해하지 않도록 사진·영상·개인정보 등 보도 주의

7. 감염병 보도에서 주의 필요 표현

- 규모, 증상, 결과에 대한 과장된, 자극적인 표현 자제

붙임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오해와 진실

1.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10만 명을 넘었다?

- 중국에서는 29일 자정 기준으로 7,711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. 총 88,693명의 밀접접촉자 중 모니터링 완료자를 제외하고 81,947명을 의학적 관찰 중이며, 의심환자는 12,167명입니다.
- 현재(1.30일 12시 기준) 총 감염자 수는 18개국에서 7,810명입니다.

2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치사율은 15%?
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명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.
- 현재(1.30일 12시 기준)까지 총 7,810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, 170명이 사망했고, 사망은 모두 중국에서만 발생했습니다. 중국 기준으로 7,711명 발생, 170명 사망으로 치명률은 2.2%로 확인되며, 치명률은 유행 정도와 그 나라의 의료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3.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사람이 아니면 검사를 못 받는다?

- 최근 중국을 다녀온 후 발열,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사례정의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됩니다.
- 현재 민간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상용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이 없어, 질병관리본부와 18개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신고된 환자들을 중심으로 검사 진행 중입니다.

* (의사환자) 중국 후베이성(우한시 포함)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 또는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, 확진 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
* (조사대상 유증상자)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

4. 김치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안 걸린다?

- 김치를 먹는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.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손씻기입니다. 바이러스는 호흡기 또는, 손을 통해 눈, 코, 입 등 점막으로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,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,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.

5. 중국산 김치를 먹거나, 중국에서 택배를 받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다?
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점막을 통해 들어가야 감염이 가능합니다. 제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더라도 중국에서부터 제조 및 운송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.

6. 확진환자가 다녀간 장소(의료기관, 식당 등)는 소독 후에는 안전한가?

- 확진환자가 다녀간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메르스 대응에 준해 환경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소독이 완료된 기관은 안전하게 이용 가능합니다.
- 일반 국민들도 손씻기 철저,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 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,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.